신(god) 하나 장만했어요?

(출20:1~11)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god) 하나 장만했어요?>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신(god) 하나 장만했어요?'
'장만하다'
이 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거나 만들어서 갖게 되는 상태로,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자동차 한 대를 장만했다든지, 결혼하기 위해 작은 집을 장만했다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god)을 하나 장만했느냐?'라는 제목으로 '나도 신 하나 장만했고, 신이 하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신이 600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을 두 개 장만할 수도 있고, 셋을 장만 할 수

도 있고, 열도 장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대문자 God으로 쓰고, 다른 신들은 god으로 쓸 뿐, 오늘 본문도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신들'이 god의 복수인 gods로 나옵니다.
대문자인 God과 소문자인 god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보통 말할 때에 하느님이 소문자 god이고, 하나님은 우리 개신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각자의 종교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라고 부르고, 다른 종교에서는 옥황상제라고도 하는데 천주, 천제, 상제 이런 것들이 다 신에 관한 이름으로 또 힌두교에도 신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신이 있고 종교마다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은 하느님(god)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God)이라고 하죠. 이런 구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첫째 계명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로 시작하여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나머지는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분류가 올바른가는 이야기를 진행하며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보이는 네 개의 계명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은 예를 들어 힌두교의 시바 신이라든지 이슬람교의 신이라든지 일본에서 말하는 600만의 신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나오므로 이런 신들도 살아있는 신들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고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면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신데 다른 신들이라고 하실 때의 다른 신들은 내용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힌두교에 있는 시바 신을 믿지 말라거나,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말하는 알라를 믿지 말라거나, 불교에서 신격화 된 미륵불 등을 믿지 말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하고 넘어서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헛된 것을 뜻합니다. 참 신이 아닌 헛된 신들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신에게 속한 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시바 신이나 미륵불에게 신의 속성을 부여해서 미륵불이 미래불로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주거나 윤택하게 해준다거나, 인도의 시바 신이나 이슬람의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서 신이 아닌 것에게 신의 속성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깨달으려면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

았을 때에 사전에 나오는 창조적 존재, 심판하는 존재, 전능한 존재 등의 속성들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다른 신을 칭한다고 이해해서는 오늘 본문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신'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루터는 대 교리문답에서 "지금 네 마음을 두고 네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네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루터의 이 견해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적중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입니다.
즉, 창조적 존재, 심판하는 존재, 전능한 존재, 무소 부재한 존재 같은 신에 대한 속성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의 신에게 적용하는 속성들인데 진짜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우리 삶에 밀착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발견되는 이 속성은 사람이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 의지할만하다고 믿어지는 속성,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곧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속성을 초월자, 전능자, 창조자,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맞고,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의 신에게 붙이는 속성이 맞지만, 진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신의 속성은 '유일한 의지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말씀하시며 '다른 신'이라고 하실 때에 주된 강조점은 '너희에게 다른 의지처를 두지 말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첫째 계명과 맞아떨어지는데, 루터의 견해가 그렇고 이 분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면 내 마음에 만족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면 내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식이 신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장로님이 그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행복하다가, 잘못되면 걱정이 산 같고 행복감이 사라진다면, 그 장로님에 대해서의 첫 계명이 "네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너의 사업을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의미가 정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신은 하나님뿐이신데, 다른 신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존재들이 살아있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살아있지 않은 우상들을 가리키기보다는 현실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에게 있어서 인도의 시바 신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슬람의 알라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불교의 미륵불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민들이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고 했지만, 현재 교회 다니는 선민들 중에서 누가 알라신을 부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째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아홉 계명이 다 안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제일 중요한데 이 다른 신은 다른 종교의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는 대상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와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어서 운명적인 부부관계로, 운명적인 파트너관계로, 운명적인 동반자관계로서 맺어졌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는 너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대상을 두지마라.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마라. 지금 네가 불만스러운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냐? 그러면 너는 지금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자식 문제가 있어서 네 마음이 불편하다면 너는 자식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종교의 신을 떠나서 의지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오해하면 나머지 계명도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 종교의 신으로만 생각한다면 십계명 전체가 다 왜곡되어 버리고, 오늘의 살아있는 복음이 아닌 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어야만 하는데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 보내져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 깨우쳐지고 기도를 통해서 보내져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이 잘 지켜지면 두 번째 계명부터가 아주 쉽게 풀려나가고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4-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미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면 내용적으로는 우상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른 신들을 종교차원에서의 신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해했으니 이제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우상 금지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일까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둘째 계명의 핵심은, 이 땅에서 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네가 주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좋고 나쁘고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학, 박사가 되어서 엘리트로 존경받는 것을 좋다고 판단해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소원하고, 소원하면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나의 주체성 안에서 발생한 모든 판단과 소원과 계획이 그대로 안 되므로 그때에 장만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상은 말이 없고 의견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 사람들이 비 온 다음에 나가보니 나일 강의 비옥한 삼각주에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만들어 섬기면 추수할 수확이 많아지겠다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신을 장만하고 우상을 장만하게 됩니다.

첫째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의지처를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다면,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인노릇하지 말라는 것으로 한 마디로 삶에 대해서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인생이 이래야 좋고 저래야 좋은지를 판단하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겠다고 소원이나 할 것이며, 그 소원을 이루겠다고 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그 난리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우상의 반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의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가지고 가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소원의 내용으로,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네 인생에 대해서 사업을 잘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느냐를 문제 삼으시는데 이게 바로 주체성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돈 많이 버는 것이 지금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돈 많이 벌겠다는 소원과 계획을 갖느냐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주체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각종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든지, 추상적으로 관념적인 신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지만, 이 계명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우상에 대한 뜻은 하나님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주체성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입니

다.
첫째 계명의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의지처를 삼지 말라는 것이었고, 의지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거기에서 올 수 있다고 믿어서 그것이 되면 행복해하고 안 되면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이것이 다 신이고, 둘째 계명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는 내가 인생에서 무엇이 좋고 필요한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우상숭배 금지는 불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주체성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갖게 된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나무 밑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운명적 동반자로 너희 앞에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네 인생을 있게 하시고, 네 인생을 구상하시고, 네 인생을 이끄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주체성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것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외의 의지처를 금지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까불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소원하고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계명은 7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름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름으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쓸데없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사용 한다'
이 말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지 않으면서, 기억하지 않으면서, 그 존재 앞에 있다는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대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마음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길이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요1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 우리 마음이 가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계명도 십자가가 없다면 성취되거나 이룰 수가 없는 계명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인, 세상에 대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쓸데없이 남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당황하거나 낭패를 보거나 하면 '오 마이 갓'이라고 하거나 '지저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남발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서 할례의 의미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말 할 때에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그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그 존재 앞에 서있다는 생각 없이 이름만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으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9-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1계명, 2계명, 3계명이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며 엿새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남들처럼 정신없이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 되면 안식일 대신에 성수주일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상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꼭 지켜야 할 것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며,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절대 사업이 잘 되거나 못됨 때문에 울거나 웃지 말라는 것으로, 사업하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사업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도 먼저 자녀의 상태에 따라 기쁨이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드린 다음에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길러야 할 것이고, 모든 직장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호불호를 내가 판단해서 주체성을 고집하며 까불지 말고, 그저 유구무언으로 어떤 과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라고 내 주체성을 죽이는 것으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좋아하는 것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상을 장만하고 의지처를 장만합니다. 나는 이제 애인이 있어서 즐겁다면 신을 하나 장만한 것이고, 하느님 하나를 장만한 것입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안면몰수하고 다른 얼굴과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사업장에 나가서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을 안면몰수하면 안 되는 것은, 사업장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앞에 와 있는데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내 앞에 있다고 믿으며 거기에 마음을 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엿새 동안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키면서 살던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자신이 일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과제가 되는 상태가 바로 안식일이고, 하나님과 충만해진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날부터는 1-3계명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1-3계명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나머지 5-10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못 지키는 이유는 이 앞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해서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고, "탐내지 말라"는 것도 탐내지 않으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그 범죄의 차원을 마음의 차원으로 바꾸어버리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차원의 범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3계명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고, 안식일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그 바쁜 중에 1-3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중에 짬짬이 애인을 만나다가 어느 날 하루를 완전히 애인과 함께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이 그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애인과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늘 애인을 마음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일을 해도 애인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씀과 통하는 것이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애인과 함께 해야 참 기쁜 것으로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애인에게 말하고 애인의 생각을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차원으로 십계명을 이해하면, 십계명은 오늘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의 현재 사건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선민 아닌 자들이 명품 백을 하나 장만하듯이 신을 하나 장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관계하는 멸망할 마음가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 생활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